

\* 박준범 전 (11/21--12/7, 정미소)

; 대부분의 현대인이 살고 있는 환경은 더 이상 인간이나 자연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은 인간이나 자연의 중심을 해체하는 주요 동인이다. 박준범은 비디오가 잡아내는 앵글의 원근법적인 왜곡을 이용하여 미디어가 재편하는 우리의 새로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주차장이나 횡단보도, 건축중인 공장지대 주변 어딘가에 그 장소를 완전히 포착할 수 있는 지점에 자리를 잡고서, 전개되는 상황에 맞추어 판토크라임을 하듯이 손을 놀린다. 피사체는 절대 눈치채지 못할 장소에서 뺏어 나온 그 거대한 손은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도 하고 자동차를 이리저리 배치하기도 하고, 거대한 공사 현장을 레고 블록 놀이처럼 보이게 한다.

(그림-1) [2building]

원근법적인 왜곡에 의해 따로 노는 듯한 전경의 손 연기는 바탕 화면과 나중에 합성된 것이 아니라, 실사촬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다만 편집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장면의 긴장감과 박진감을 더 한다. 또한 작가는 화면 뿐 아니라, 전시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점을 부여한다. 두터운 유리바닥으로 되어 있어 아래층이 보이도록 설계된 공간 바닥면에 비디오를 투사하여 작품을 찍었을 때의 위태로운 시점을 관객들이 체험해 볼 수 있게 한 것도 그러하고, 내장 처리가 안돼 벽돌이 그대로 드러난 벽면과 철판으로 막힌 전시장 창문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반복한 듯한 작품이 그러하다.

[5window]

(그림-3) [5window](설치전경)

그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능한 존재나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질서를 규정하는 규범 따위같은 구조적 힘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공장을 짓는 법, 주차하는 법, 대중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이합집산 하는 것 등은 거의 확실하게 코드화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많은 인간들이 좁은 곳에 모여 살면서 반드시 지켜지는 규범들, 이 보이지 않는 구조적 힘에 작가는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 박준범의 작품에 나오는 인간들은 너무 작아 얼굴이 없다. 화면 상에서 거대한 손의 얼굴이 없는 것처럼...인간의 배꼽에서 퍼져나가는 질서를 따라 조직되는 우주를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인체상이 보여주었던 비전과는 달리, 미디어가 지배하는 현대는 인간을 원자로 분해시켰다.

루시앙 골드만이 [숨은 신]에서 말하듯, 전통적인 공동체는 무너지고 상호교체 가능한 이성있는 개인들의 무한한 양의 총합의 상으로 대체된 것이다. 또한 물리학의 차원에서 합리주의는 질서 있는 우주의 관념을 파괴하고 제한도 특성도 없는 무한한 공간의 관념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한 공간에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상호 교체될 수 있다. 근대의 합리주의는 그 이전에 자연을 채웠던 모든 동물적 영혼과 힘, 원리들을 없애버리고 다른 질서로 변형시켰다. 특히 기계는 지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인간과 사물은 단순한 도구, 즉 합리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 [3 crossing]

#### [1 parking]

박준범의 작품에서 인간을 포함한 세계는 보이지 않는 구조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손은 그 구조의 힘을 보다 분명하게 가시화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은 구조의 힘의 지배를 받는다. 장 피아제가 지적하듯이 사회 집단은 명백히 하나의 전체이며, 동태적이고 변형의 과정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사회집단에 대한 기본적 사실중의 하나는 그 집단은 모든 종류의 한계와 규범(규칙)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율 통제적이라는 것이다. 사회구조는 물리학에서의 인과 관계처럼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성물이다. 그것은 관찰 가능한 사회적 관계에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구조는 아무리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개인들이 다소간 복종하는 규범이나 규칙의 형태로 스스로를 표현한다. 구조주의적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는 구체적 사회관계 이면에는 항상 무의식적이고 따라서 추상적인 구조 모형을 세련화 시킴으로서만 발견 가능한 형식적인 개념적 구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구조 결정론은 수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박준범이 세계를 변형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도구인 인간의 손을 구조와 동일시 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다른 동물들은 그들의 종을 변형시키는 방법 외에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인간은 세계를 변형시킴으로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조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그 자신의 구조인데 이는 그 구조가 내부로부터나 외부로부터 영구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구코트를 마치 탁구대처럼 연출한 작품이나 도시를 리모콘 모양의 우주 왕복선이 왔다갔다하는 어떤 천체로 소격시킨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미디어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시점을 벗어나 세계를 자기 논리대로 재편해 간다.

### [25 acrophobia]

#### [12 wrap gate]

인간에 대한 구조의 우위성, 개인들에게 부과된 무의식적 의식적인 규율화의 힘은 물론 선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침하는 과정일 따름이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가 물러난 것처럼, 진보하는 기술과학이 낱알이 새롭게 보여주는 광경들처럼 말이다. 그것은 장 피아제가 말하듯이 주체로 하여금 비인간적이고 일반적인 것들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리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주체의 활동이 그 주체의 자연발생적이고 지적인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해방되

는데에 필수적인 연속적인 탈 중심화를 보여준다. 요컨대 박준범의 작품에서 강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구조의 물화된 형태가 아니라, 구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그 구조가 구성과정 상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는 또다른 차원에서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